

잡아함27 향법경

날짜: 11월 21st, 2023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587>

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

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. 그때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찾아와 부처님 발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서서 여쭙었다.

“세존께서는 ‘법을 따르고 법으로 향하는 것[法次法向]’을 말씀하시는데, 어떤 것을 법을 따르고 법으로 향하는 것이라 합니까?”

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.

“훌륭하고, 훌륭하구나. 네가 지금 법을 따르고 법으로 향하는 것을 알고싶으냐?”

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.

“그렇습니다. 세존이시여.”

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.

“자세히 듣고 사유하라.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. 비구야, 색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, 탐욕을 떠나서, 모든 번뇌를 다하는 곳으로 향하면, 이것을 이름하여 법을 따르고 법으로 향하는 것이라 한다.

이와 같이 수 · 상 · 행 · 식에 대해서도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, 탐욕을 떠나서, 모든 번뇌를 다하는 곳으로 향하면, 이것을 이름하여 법을 따르고 법으로 향하는 것이라 하느니라.”

그때 그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 뛰면서 예배하고
물러갔다.

본 문서는 dhamma.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.